

주일 예배 순서

- 강림절 제4주/성탄주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요한복음 1:1-4,14,18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118장(새 118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56번(새 120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으셨기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깊이 깨닫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해마다 습관적으로 맞는 연례행사가 아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커져가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특별찬양(Special Hymn) 찬양팀
- 성극(Biblical drama) 허영희성도
- 성경봉독(Scripture) 요한복음 12:20-26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 봉 헌(offering) 111장(새 111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122장(새 122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뜻이 여러분 가정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3. 말씀묵상집 ‘날마다 솟는 샘물’ 1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4. 오늘 친교 후 소망 속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는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기도제목>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야고보서 4:11-12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회를 헤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 안에 똑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말씀묵상> 요한복음 12:20-26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1.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뵈고자 한 헬라인들의 청을 들은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0-2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내가 생각하는 영광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6절)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역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친히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이 되면 떠들썩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이유와는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동시에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땅에 떨어지는 밀알이 되셨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요10:18)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섬기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26절)” 이 말씀은 내세에 있을 영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잘 갖춰진 예배형식과 웅장한 예배당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성탄의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친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